

동편제에 웃고 서편제에 울고...남도 판소리 '일쑤'

판소리 유파(流派)는 크게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섬진강 잔수(구례)의 동쪽지역 명창들에 의해 완성된 동편제는 담백한 맛과 남성적이고 활기찬 특징을 지녔다. 보성 등지에서 성행한 서편제는 '유연애절(柔軟哀切= 부드럽고 우면서도 구성지고 애절한)하고, 슬픈 계면조(界面調)의 가락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구례와 보성에서 열리는 소리축제를 찾아 판소리의 진수를 만끽해 보자.



11~13일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구례 실내체육관 일원

지리산과 섬진강을 무대로 '동편제' 소리 한마당이 펼쳐진다. 구례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구례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제6회 구례 동편제 소리축제'를 연다. 축제 기간에 소리꾼들의 등용문으로 알려진 '제18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도 함께 개최된다. 첫째 날인 11일에는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의 판소리·고수 부문 예선전과 호남여성농악 판교, 개막식이 진행된다. 이날 개막공연에서는 송순섭, 강정숙, 박정선, 이난초 등 최고 소리꾼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일에는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판소리·고

수 부문 본선 및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조통달, 김영자, 김수연, 이생강 등 명창과 명인이 흥을 돋우는 동편제 명인명창 초대전과 판소리 '심정전'을 재구성해 뽐내어뵈는 주안공으로 내세운 창극 '뽕파전'도 펼쳐진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인 '구례 향제줄풍류 공연'과 '거석마을 전래민요 공연'이 이어진다. 폐막공연인 '동편제 젊은소리'에서는 이영태, 조선하 등 구례 출신 명창과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대상 수상자, 차세대 젊은 소리꾼들이 함께 꾸미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24~26일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보성소리전수관 등서

보성군과 보성문화원(원장 정형철)은 24일부터 26일까지 서편제 보성소리 전수관과 다향체육관, 판소리성지 등지에서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축제는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통한 인재 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나라 최고의 정통 판소리 축제이다. 첫날인 24일에는 판소리 성지에서 서편제의 비조(鼻祖) 박유전(1835~1906) 선생 추모제와 추모 공연이 열린다. 둘째날인 25일에는 보성의 이야기를 담은 새로운 아리랑 '보성이리랑'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전남 도립국악단과 '보성소리와 퍼포먼스'

공연, 전국 판소리 고수 경연대회 예선, 청소년 어울 마당, 보성·곡성·의성 동서화합 문화교류 등 흥겨운 우리 가락 한마당이 마련된다. 26일에는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 본선과도·농간의 전통문화예술의 가치 공유, 문화소통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공연이 열린다. 조성현, 성창순, 조통달, 박애리, 이성현 등 중요무형문화재와 신예 명창을 비롯해 퓨전 국악그룹 '아이리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 밖에도 '판소리 나도 명창', '보성소리 한 대목 배우기' 등 관객과 함께 즐기고 어울릴 수 있는 체험행사와 역대 판소리 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의 공연도 마련된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진도 동학 지도자 유해 120년만에 안식처 찾아

내달 정읍 황토현전적지 안치

일본군에게 효수된 뒤 120년간 방치됐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가 11월 중순 정읍 황토현전적지에 안장된다. '무명 동학농민군지도자 안장위원회'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어 동학농민군 유골을 11월 21일 황토현전적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당일 오전 유해가 임시 보관된 전주 역사박물관에서 제를 올린 뒤 유골을 정읍으로 운구하게 된다. 묘역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에 맞게 화려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유해가 안장될 황토현 전적지는 농민군이 관군을 대패했던 혁명의 성지로, 정부가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기 위해 기념공원을 조성하는 곳이다. 위원회는 이런 상징성이 있는 데다 이곳에 동학농민혁명 희생자를 모실 대규모 묘역과 위령탑이 들어설 전방이라는 점을 고려해 장지를 정했다. 한편 이 유골은 지난 1995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한 창고에서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와 함께 발견됐으며 1년 뒤인 1996년 국내로 봉환됐다. 그러나 안치할 묘역을 찾지 못해 그동안 전주 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내일 청배연희단 공연

남원 국립 민속국악원 예원당서

국립 민속국악원은 11일 남원시 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예술인들의 공연인 청배 연희단의 'ONE'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한국가·무·악의 총체인 전통연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했다. 경북 북쪽의 난버들 퍼포먼스와 무속 장단으로 새롭게 만든 사물놀이·배를 형식의 전통판교 등 신명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2001년 창단된 청배 연희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전통연희단체다. 2010년 서울아트마켓 팸스츠이스 선정, 2006년 세계사물놀이 대령상, 2011년 영국 랑골른 국제음악페스티벌 우승팀으로 한국의 전통예술을 젊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다. 청배연희단 주영호 대표는 "공연에 앞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음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관객과 함께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전남산림연구소, 전국 최초 리기다 소나무 원목서 '복령' 재배 성공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면역력 증가 특효...95% 수입 의존 기존 지하매물법 비해 품질 뛰어남



리기다소나무 원목에서 자라고 있는 복령.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지상에서 소나무는 물론 전국 최초로 리기다소나무 원목에서도 '복령'을 인공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복령은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하는 소나무에서 주로 기생하는 갈색부후균으로, 북한에서는 소나무뿌리에 흑처럼 달린다고 해 '솔뿌리흑버섯'이라 불린다. 내부의 색깔에 따라 백색이면 '백복령', 담홍색이면 '적복령'이라 불린다. 최근에는 면역력 증가에

대한 효능이 입증되면서 그 수요가 늘고 있다. 9일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소나무, 굴솔, 리기다소나무, 테에다소나무 등을 대상으로 복령 인공재배에 나서 소나무, 굴솔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리기다소나무에서 복령 재배를 성공했다. 지금까지 복령 재배는 소나무 원목을 활용해 1980년대 초반부터 지하 매물에 의한 인공재배가 시작됐으나 생산량이 매우 적어 국내에 유통되는 95%가 수입에 의존해왔다. 또 기존 지하매물 재배의 품질 저하, 재배 기간의 장기화, 넓은 재배 면적 소요, 인건비 증가 등 단점

을 보완한 지상 재배 성공으로 인해 복령 재배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연구소의 설명이다. 전남도의 리기다 소나무림은 현재 2만5618ha에 달하며, 송진이 많이 나오고 용이가 많아 목재의 질이 떨어져 목재집 등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다. 박화식 소장은 "앞으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우량 품질의 복령 종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은 재배기술을 연구해 농가의 소득 창출 및 복령의 대중화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SD메디컬 빌딩임대

양산사거리 최고상권!
지하 주차장 시설완비
엘리베이터 2기 운용(대형, 중형)

- 6층 98평 병원 및 사무실
- 3층~5층 각층 124평 병원 및 사무실
- 1~2층 임대안료 레스토랑, 약국, 다이소
- 지하1층 주차장

SD메디컬 빌딩

용두주공 양산타운 APT APT

건물관리 유행형자 모집 연령 50세 이상

문의 : 010-8625-1131(분양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화정동 터미널인근 대지 661㎡(200) 7층 건물 245㎡(741) 은행 15억 전세 4억 이상 월 1500선 수매매도 23억
- 담양군 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지가 9천 매도 1억7천
- 금남로 가구정 대지 416㎡(126) 공시지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계림동 준주거 대지 799㎡(242) 5층 건물 1610㎡(487) 김정 14억 5천 은행8억93천 사육 등 적합 교환가능 10억
- 금남로 4가 대로 대지 317㎡(97) 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매도 14억5천
- 전원주택(개발제한) 화순군 동면 일야 126903㎡(38390) 공시지가 6억9천 화순군에서 15분 거리 도로연결 좋은 10억

투자 / 매도 / 교환

- 쌍촌동 대지 198㎡(60) 건물 453㎡(137) 1층은 기계와 인직 원목 15개 5억 2천
- 쌍촌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림과 원목 5개 부록 4개 대출1억5천 매도 6억4천
- 모텔, 담양 대지 978㎡(296) 객실 24개 은행 3억7천 매도 5억천
- 충장로5가 4거리 코너 대지 272㎡(87) 건물 493㎡(149) 8억2천
- 쌍촌역 고신동 대지 272㎡(87) 건물 493㎡(149) 보증금 3천만원에 월 490만원 선 수익 노후생활에 적합 5억2천만원
- 편백나무산 장성군 삼계면 36099㎡(10900) 1억2천
- 보성빌을 토지 순천시 상사면 담960평 공시지가 2100 매도 2300
- 진일동 호반아파트 옆 대지 201㎡(61)대출 7500 매도 1억8200
- 광산구 하산동 대지 1213㎡(367) 대출 9천 교환 1억5천
- 영산포와 영암간 도로전 측당 대지 1053㎡(318) 건물 266㎡(80) 영일점점 상가 주택 교환 4억5천

임대

- 쌍촌동 기도 생활주택 전세 234㎡(71) 오락실, PC방, 생활주방 등 다용도 보증금 5천에 월 220나타 티오펀서 조정함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기도 생활주택 전세관

바닷가 전원주택지

완도군 고금 해룡리 남향 바닷가 조망원룸형 전원주택지

- 지역 : 생산관리지역 등
- 지목 : 전
- 면적 : 7,670㎡
- 매가 : 3.3㎡ 당 12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산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 관리, 농림 혼합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8,569㎡
- 매가 :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창석
011-642-7777

특별 빌라분양 6세대

충분양가 530,000,000원

1세대 월세 보 2천만원, 월50만원
1세대 전세 보 7천만원
1세대 분양 1억1천만원 가능
1세대 용자 6천만원

1세대 | 전용 59.4㎡ | 분양 72.6㎡

◎ 위치 ◎
광주 북구 운암동 140-22

투자가치100%
"강력추천"

다와옥션

☎062)232-9994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